

종합·해설



4·11 총선 표밭은 지금

■ 영암·강진·장흥



4·11 총선 현장

‘무주공산’ 민주통합 5명 공천경쟁 치열

3선의 현역 유선호 의원이 서울에 출마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이곳에는 민주통합당에서 국령에 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전 전 한국교육방송공사 부사장, 김영근 전 한국경제신문 정치부장, 유인학 전 국회의원, 황주홍 전 강진군수 등이 출마했다.

Table with 7 columns: Party, Name, Age, Position. Lists candidates for the 4·11 election in Yeongam, Gangjin, and Jangheung.

국령에·김명전·김영근·유인학·황주홍 ‘유선호 공백 내가 채우겠다’ 민심 공략 새누리당 이례적 3명 공천 신청 눈길

국 부위원장은 전남에서 두 명뿐인 민주통합당 소속 여성 예비후보. 사회복지전문가인 그는 “국회에 들어 가면 사회가 가려워하는 곳, 서민이 힘들어 하는 곳을 찾아 다독이는 ‘생활밀착형’ 법안을 만들겠다”며 ▲노인농업특별지원법 제정 ▲한우불고기 클러스터사업 유치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위한 특별법 제정 ▲영암 삼호지역에 특수목적고 설립 등을 공약했다. 13~14대 국회에서 활동한 유 전 의원은 15대 공천 탈락 후 16년 동안 주 소지를 장흥에 두고 권도종래를 꿈꿔 왔다. 그는 “지역·세대·계층 간 갈등을 해소, 세계적 국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다”며 ▲전남 중남부권에 국제문화관광자유지역 설치 ▲한우 30만두 정부수출 촉구 ▲사료값 관세 철폐 등을 공약했다.

영암 3개 군 중 영암이 가장 많은 4만 7000여명, 장흥이 3만4000여명, 강진이 3만3000여명이다. 하지만, 영암의 인구는 15대 공천 탈락 후 16년 동안 주 소지를 장흥에 두고 권도종래를 꿈꿔 왔다. 그는 “지역·세대·계층 간 갈등을 해소, 세계적 국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다”며 ▲전남 중남부권에 국제문화관광자유지역 설치 ▲한우 30만두 정부수출 촉구 ▲사료값 관세 철폐 등을 공약했다.

진에서 과반에 가까운 지지를 얻자 영암 출신인 유 전 의원과 장흥 출신인 김 전 부사장은 고항에서 30% 안팎의 지지세를 확보한 것이다. 또 황 전 군수가 민주당 복당이 불허될 정도로 중앙당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컷오프 탈락 가능성이 있다는 상대 후보들의 공약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경선 변수는 황 전 후보에 대한 집중 견제와 여성전담공천 여부다. 윤영수 전 강진군수와 박모 전 강진군 총무과장은 황 전 군수의 저서와 관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상대 후보들을 각종 토론회 등에서 ▲윤영수 군유립 매각 특혜 의혹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건설 ▲청자 고가 매입 논란 등에 대해 공세에 나서고 있다.

또 민주당이 여성 의무 공천 15% 규정을 정함에 따라 국 부위원장의 전략공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으나 상대 후보들은 여성의 정치 참여에는 찬성하나 전략공천 대상자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자신이 치러졌을 경우에는 컷오프 탈락자들의 무소속 출마 여부 등이 이번 총선의 최종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국민선거인단 오늘부터 모집

모바일·현장 투표 대비 예비후보들 과열 우려

민주통합당 4·11 총선 후보자 경선을 위한 국민선거인단 모집이 20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선거인단 확보를 위한 과열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인단 모집 경쟁의 과열 현상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차별적으로 시민에게 전송하면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이 선거인단 모집에 개입하고, 일부는 거리에서 불법적으로 선거인단을

특히 후보자들이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무

모집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불법 선거가 전개될 우려도 가시지고 있다. 조직을 동원한 선거인단 모집과정에 돈 선거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29일까지 진행되는 선거인단 모집이 지난달 정당대선택 때 80만 명이 참여한 것을 감안할 때 최소한 100만 명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정현, 오늘 선거사무소 개소

김성숙 “상품거래소 서구 유치”

4·11 총선 광주 서구 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20일 오후 3시 광주 서구 상무2동 금호지구 입구 사거리에서 선거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틀어잡았다. 새누리당 공천이 확실시되는 이 의원은 이날 개소식에서 “일당 독점체제를 위대한 광주시민이 선거혁명을 통해 막아달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개소식에는 이종구 국회의원, 장만재 전남도교육감 등 장애인단체 회원을 비롯한 지지자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 김성숙 광주 서구 을 예비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북아상품거래소 광주 유치가 MB정권의 출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동북아상품거래소를 공군탄약고 이전부지인 서구 벽진동·마복동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제상품거래소가 광주에 유치될 경우, 거래금액, 증거금, 보증금 수수로 등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유통될 것”이라며 “10조원 이상의 생산자발출과, 광주시 미래금융산업 허브화가 가능해지고 이를 위해 전남대·조선대 등에 국제금융대학원을 설치하겠다”고 주장했다.



박혜자, 여성후보 단일화 제안

정남준 “돈·조직 선거 우려”

민주통합당 박혜자 광주 서구 갑 예비후보는 19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박 예비후보는 “광주 지역 여성계와 지역민의 오랜 여망을 이루기 위해 최근 장해진 예비후보에게 ‘여성 예비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라며 “공개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후보를 내지는 합리적인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예비후보는 “여성 여성후보 단일화를 환영하지만, 박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무소속 정남준 광주 서구 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9일 “민주통합당 후보의 과열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돈 조직 동원선거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원들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현역 국회의원이거나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현모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

김명진, 홍보물 ‘명진체널’ 개설

민주통합당 임현모 광주 북구 갑 예비후보는 19일 최근 중국 정부가 탈북자 30명을 복송시키는 문제와 관련, “중국정부는 탈북자 강제송환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탈북자들의 복송을 막기 위해 북한 인권단체가 중국과의 외교 협상 노력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고 있지만, 주한 중국대사관은 아직까지 탈북자 신변안전에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기에 당장 중지하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김명진 남구 예비후보는 정책공약 홍보 영상물 ‘명진체널’을 개설했다. 김 예비후보는 “명진체널” 영상 홍보물은 EBS의 ‘지식체널’을 패러디한 정책공약 홍보물로서 사실 자료와 통계 등을 인용해 시리즈 형식으로 친근감 있게 공약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보물은 김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 및 ‘인연(因緣) 복지공동체’ 공약을 소개하고 있다. 이 영상물은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다.



임내현 “광주 수소에너지 메카”

이상갑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민주통합당 임내현 광주 북구 을 예비후보는 19일 “광주를 수소에너지 메카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를 수소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실증단지 조성 및 실증사업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1차적으로 6600㎡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 단지를 조성하고,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과 연료전지 자동차 운행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이상갑 광주 서구 을 예비후보는 19일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영유아 부모들에게 “국공립 보육시설을 전체 보육시설의 30% 이상 확충하는 데 앞장서고, 특히 광주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전국 평균 국공립 보육시설 시설 비율은 전체 보육시설 중 5.5% 정도로 매우 적지만, 특히 광주는 1192개 시설 중 2.5%인 31곳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Advertisement for Hanja/Hanwen guide qualification training. Includes details on enrollment dates (March 5-6), fees (₩360,000), and contact information f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Advertisement for Hanja/Hanwen guide qualification training. Includes details on enrollment dates (March 9-10), fees (₩350,000), and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u Women's University and Kwangju National University.

Advertisement for Nongseongdong Leaders' High Real Estate Showroom. Includes details on location, floor area, and contact information (010-3625-6984).